

니제르 군부 쿠데타 배경 분석 및 전망

김 동 석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23. 9. 8.**

발 표 **김동석** 전략지역연구부 부교수

토 론 **박 철** 아프리카중동국 아프리카2과 서기관

이한규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 소장

박종대 주남아프리카대사관 전 대사

발 행 일 **2023년 10월 6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손도희 연구원**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니제르 군부 쿠데타 배경 분석 및 전망

CONTENTS

문제 제기	01
니제르 군부 쿠데타 개관	04
니제르 군부 쿠데타 배경	10
전망	16
정책적 고려사항	22

1. 문제 제기

〈그림 1〉 니제르 지도



출처: <https://ngara.org/niger/attachment/niger-map/>

» 니제르(Niger)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에 위치한 내륙국임.

- 면적은 1,267,000km²로 아프리카에서 6번째로 큰 나라이며, 알제리, 말리, 부르키나파소, 베냉, 나이지리아, 차드와 국경을 접함.
- 인구는 약 2,600만 명이며, 수니파 무슬림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함. 하우사-풀라니(Hausa-Fulani)족이 전체 인구의 약 60%, 제르마(Djerma)족이 약 20%, 투아레그(Tuareg)족이 약 12%를 차지하며, 그 외 다양한 소수 종족이 거주함.

● 우라늄, 금, 석탄, 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00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함.

●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림. 네 차례 쿠데타로 인한 정권 교체가 발생하였고, 2021년에야 선거를 통해 집권한 두 대통령 사이에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1990년대 정부와 투아레그족 반군 간 무력 충돌을 경험하였고, 2010년대 중반부터 말리 및 나이지리아발(發)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 활동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음.

≫ 올해 7월 26일 니제르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군부 인사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메드 바줌(Mohamed Bazoum)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함. 이틀 뒤 대통령 경호대 수장 압두라흐마네 치아니(Abdourahamane Tchiani) 장군을 대통령으로 옹립함. 대통령과 군부 간 갈등 심화, 반프랑스 정서 확산, 인접국 쿠데타 성공을 쿠데타 발생의 주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국제 사회는 니제르 쿠데타 세력을 비난하면서 바줌 대통령의 석방 및 민정 복귀를 요구함. 특히 니제르를 회원국으로 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경제 제재를 시행하면서 무력 사용을 위협함. 이러한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주동자들은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권력 기반을 다지는 작업에 착수함.

≫ 니제르 쿠데타는 아프리카 역내 및 역외 정세에 영향을 끼침.

● 2020년대 들어 말리(2020.8 & 2021.5), 부르키나파소(2022.1 & 2022.9), 기니(2021.9), 수단(2021.10), 차드(2021.4)에서 쿠데타가 성공함. 니제르 쿠데타로 사헬 지역에 ‘쿠데타 벨트’가 형성됨. 이는 역내 민주주의 퇴보 우려를 낳음. 동시에 쿠데타로 인한 안보 공백은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 활동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였던 사헬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옴. 하지만 말리, 부르키나파소에 이어 니제르에서 친프랑스 지도자들이 잇달아 축출되면서 프랑스의 위상 타격이 불가피함. 반면 아프리카 재진출을 추진하는 러시아는 말리, 부르키나파소에 이어 니제르를 품으면서 사헬 지역에서 영향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니제르 군부 쿠데타를 개관하고 발생 배경을 분석하고자 함. 다음으로 쿠데타 이후 상황을 전망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 니제르 군부 쿠데타 개관

가. 쿠데타 발생 과정

» 2023년 7월 26일 니제르에서 대통령 경호대(Presidential Guard) 출신 군부 인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바쭌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함.

● 바쭌은 2021년 4월 대통령에 취임함. 전임자 마하마두 이수푸(Mahamadou Issoufou)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두 번 연임 후 물러나겠다고 선언함. 이에 따라 이수푸 정권하에서 외교부, 내무부 장관을 지낸 바쭌이 여당 니제르 민주사회당(PNDS-Tarayya: Parti Nigérien pour la Démocratie et le Socialisme-Tarayya) 후보로 나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

● 니제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두 지도자 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니제르 군부 쿠데타로 바쭌 대통령 축출

» 쿠데타 세력은 바쭌 대통령과 그 일가를 대통령궁에 감금하고 정부 고위 인사들을 체포함. 동시에 헌법과 정부 기관의 기능 정지, 야간 통행금지 실시, 인접국과의 국경 폐쇄 등을 단행함. 바쭌 대통령 지지자들은 쿠데타에 반발하여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쿠데타 세력에 의해 진압됨.

» 니제르 정규군은 쿠데타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쿠데타 지지를 선언함.

● 니제르를 비롯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대통령은 쿠데타 방지(coup proofing)를 목적으로 정규군 외 다른 군대를 창설하여 운용함. 즉 친위 부대를 키워 정규군을 견제하고자 함.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친위 부대의 군사 역량이 정규군보다 더 우수한 경우가 많음.

● 니제르 정규군 수장들은 군사 역량이 우세한 대통령 경호대와 무력 충돌 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따라서 쿠데타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정치 체제 하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를 꾀함.

≫ 대통령 경호대와 정규군 연합은 ‘조국수호국민회의(CNSP: Conseil National pour la Sauvegarde de la Patrie)’라는 임시정부 운영체를 창설함. 7월 28일 대통령 경호대 수장 압두라흐마네 치아니 장군을 CNSP 수장 및 대통령으로 옹립함. 전직 정규군 참모총장 살리푸 모디(Salifou Modi)가 부(副)수장에 취임함. 8월 초에는 민간인 총리를 필두로 한 과도 정부 내각을 구성함.

≫ 아프리카 지역 기구 및 프랑스, 미국은 니제르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면서 바중 대통령의 즉각 석방 및 민주 정부 복구를 촉구함. 특히 ECOWAS는 니제르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고려 중임. 쿠데타 세력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3년 과도기 후 민정 이양’ 방안을 제시함. 동시에 외부의 군사 개입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함.

나. 국제 사회의 반응

≫ 아프리카 지역 기구 및 프랑스, 미국은 니제르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면서 민주 정부 복구를 요구함. 반면 러시아, 중국은 쿠데타 세력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 ECOWAS 회원국 중 쿠데타로 집권한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지도자들은 니제르 쿠데타에 지지를 보냄.

(1) 아프리카 역내 기구

≫ 아프리카 역내 지역 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및 ECOWAS는 특사를 파견하여 쿠데타 세력과 협상을 시도함. 하지만 협상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함.

≫ ECOWAS는 경제 제재 시행과 더불어 군사 개입을 모색 중임.

- 니제르 쿠데타 인사들에 대한 재산 동결, 여행 금지 등을 시행함. 동시에 회원국과 니제르 간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정지함. 설상가상으로 나이지리아는 니제르로의 전력 송출을 제한함.

- 쿠데타 인사들의 민정 복구 거부 시 무력 개입을 천명함. 7월 30일 ECOWAS 회원국 지도자들은 7일 이내 바준 대통령 석방 및 민정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하겠다고 선포함. 하지만 디데이(D-day)는 별일 없이 지나감. 이후 ECOWAS는 상비군(stanby force) 조직, 군사 개입에 필요한 장비, 자원 마련, 새로운 디데이 설정 등을 추진함.

- 하지만 ECOWAS는 무력 개입이 모든 옵션이 소진된 후 적용될 수 있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임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쿠데타 세력은 ECOWAS의 무력 사용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군사 개입 발생 시 저항할 뜻을 밝힘.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는 무력 개입을 '전쟁 선언(declaration of war)'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더 나아가 쿠데타 세력이 말리, 부르키나파소에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 아프리카 지역 기구는 쿠데타 인사들이 제안한 '3년 과도기' 안을 거부함. 대신 과도기 기간을 1년 안으로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2) 프랑스 및 미국

» 프랑스는 쿠데타 정부를 ‘불법 정부’로 규정하고 니제르와의 군사 협력 및 원조를 중지함. 이에 대응하여 쿠데타 세력은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 및 군사 협력 축소에 나섬.

● 니제르는 프랑스의 사헬 지역 바르칸(Barkhane) 작전의 본거지가 됨. 말리 내전 개입 이후 프랑스는 5,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사헬 지역에 배치하여 군사 작전을 전개함. 하지만 쿠데타로 집권한 말리, 부르키나파소 지도자는 프랑스와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함. 프랑스는 철수한 병력을 니제르에 재배치하면서 니제르를 축으로 군사 작전을 전개함. 현재 1,500명의 프랑스군이 니제르에 주둔함.

● 니제르는 우라늄, 석유, 금과 같은 자원이 풍부함. 특히 전력 생산에 있어서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프랑스는 니제르 우라늄을 독점 개발해 옴. 이와 더불어 니제르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 유럽으로 이주를 시도하는 아프리카인들이 모이는 거점임. 프랑스는 이주민 유입 감소를 목적으로 니제르에 상당량의 원조를 제공함.

● 프랑스는 쿠데타 인사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니제르와의 군사 협력 및 경제 원조 중단을 단행함. 동시에 ECOWAS의 사태 해결 노력을 지지함.

● 니제르 쿠데타 정부는 프랑스가 바준 복귀를 목적으로 정세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난함. 프랑스군과의 모든 군사 협력 관련 협정 파기를 선언하였으며,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함. 또한 프랑스 대사의 추방을 명령하고 프랑스 언론 매체의 활동을 제한함.

● 니제르의 요구를 거부해 온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프랑스군 및 대사 철수를 전격적으로 결정함.

» 미국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니제르 쿠데타를 비난하면서 민정 복귀를 촉구함. 경제 원조 일부를 중지시켰고, 민정 복귀 지체 시 전면적인 제재 시행을 한다고 위협함. 하지만 프랑스와는 달리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명명하지 않으면서, 전면적인 제재 시행 회피를 시도함.

- 미국은 아가데즈(Agadez)에 드론 기지를 운용함과 동시에 1,100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여 니제르 정부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017년 10월, 미군 4명과 니제르 군인 4명이 다에쉬[Daesh,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계통 이슬람국가 대(大) 사하라지부(IGS: Islamic State in the Greater Sahara)와의 교전 중 사망한 사건으로 미군의 니제르 내 활동이 알려짐.
- ‘쿠데타’ 명명 시 쿠데타가 발생한 국가에 원조를 제한하는 법(Section 7008)이 니제르에 적용될 수 있음. 이는 사헬 지역 반테러 작전의 교두보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미국은 제재 부과를 피하면서 고위 인사를 파견하여 니제르 쿠데타 세력과의 협상을 시도 중임. 이러한 협상은 드론 기지 운영 재개 합의로 이어짐.

(3) 러시아 및 중국

➤ 러시아 정부는 니제르 쿠데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평화로운 해결 모색을 지지함. 반면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진출한 바그너 용병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은 니제르 쿠데타 지지 입장을 표명함.

- 2010년대부터 러시아는 대(對)아프리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함. 28개국과 국방 협력 조약을 체결하였고,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와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말리 등에 배치된 바그너 용병은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음. 러시아의 아프리카 재진출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안보리 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가 기권 혹은 반대표를 던진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줌.
-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가 니제르 쿠데타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 러시아는 니제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 하면서 ECOWAS의 무력 개입 시도에 반대함.
- 반면 프리고진은 쿠데타 지도자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안하였고, 쿠데타 세력이 이를 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대(對)니제르 투자량 2위인 중국은 쿠데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평화적인 해결 촉구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함. 이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핵심인 내정 불간섭 원칙 고수에 기인함. 또한 쿠데타 세력이 중국이 거액을 들여 투자한 프로젝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 중국은 마마두 탄자(Mamadou Tandja) 대통령 재임(1999~2010) 시 니제르에 본격적으로 진출함.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PetroChina, 이하 ‘페트로차이나’)는 수도 니아메에서 약 1,600km 떨어져 있는 아가뎀(Agadem) 유전 개발을 니제르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 중임. 중국 핵공업총공사(CNNC: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는 중부 지역 아젤릭(Azelik) 우라늄 광산 개발을 진행했음. 이와 더불어 수력발전소, 댐, 원유 운송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전개함.

3. 니제르 군부 쿠데타 배경

가. 대통령과 군부 간 갈등 심화

대통령과 군부 간 갈등 심화,
반프랑스 정서 확산,
인접국 쿠데타 성공

» 니제르 쿠데타는 바쥬 대통령과 군부 인사들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함. 이들은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 활동으로 인한 안보 불안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놓고 대립함. 동시에 바쥬의 안보 기관 수장 교체는 군부 인사들의 반발을 초래함.

» 2010년대 중반부터 니제르 정부는 두 개의 전선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 세력과 대치하고 있음.

- 말리, 부르키나파소와의 국경 지역에서는 다에쉬 연계 조직인 IS-대사하라 (ISGS: Islamic State in the Greater Sahara),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이슬람·무슬림 지지그룹(JNIM: Jama'at Nasr al-Islam wal Muslimin) 등이 공격을 전개함.
-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 본거지를 둔 보코하람(Boko Haram)과 분파 조직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Islamic State's West Africa Province)가 국경을 넘어 니제르에서 테러 공격을 자행함.
-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과의 전투로 수천 명의 니제르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함. 동시에 30만 명 이상이 국내 실향민 혹은 난민으로 전락하였으며,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존하게 됨.

» 바중 대통령의 안보 위기 해결 방식은 ▲프랑스, 미국 등 서구와의 군사 협력 강화, ▲무장 조직과의 대화, 조직원 무장 해제 및 사회 통합 촉진과 같은 유화책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됨. 즉 군사적 방식과 정치적 방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 방식을 추진함.

● 바중은 반테러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친서방 정책을 강화함.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 철수한 프랑스 병력 재배치를 승인함. 동시에 니제르 정부군 훈련 및 기타 지원을 담당하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병력 규모가 증가함. 서구는 니제르를 사헬 지역 반테러 작전 교두보로 간주하며 상당량의 군사 원조를 제공함.

● 군사 작전과 더불어 정치적 해결책을 추진함. 무장 단체와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조직원의 이탈 및 무장 해제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침. 폭력적 극단주의에서 손을 뗀 조직원은 감옥에서 석방되어 사회 재적응(reintegration) 과정을 거침.

» 바중의 종합적 접근 방식은 테러 공격 사상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함. 무력분쟁 위치·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에 따르면 2022년 니제르에서 테러 공격 희생자 수는 1,051명으로 인접국 말리(4,027명), 부르키나파소(2,074명)에 비해 적음. 또한 올 상반기 사망자 수는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 인사들은 바중의 안보 정책에 반기를 들.

● 외국군 증가는 니제르군 지도자들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짐. 프랑스, 미국 등이 군 훈련, 작전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면서 이들의 역할이 축소됨. 군부 지도자들은 ‘신식민주의적’ 사고를 지닌 서구 군대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 비난함.

● 군부 인사들은 군사적 해결방안을 선호하며 유화 정책 추진에 반대함. 이들은 지하디스트(jihadist)와의 대화, 무장 해제 및 사회 재적응 등이 무장 단체 소탕을 가로막고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 활동 지속에 일조할 수 있다고 우려함.

» 바중 대통령과 군부 간 갈등은 종족 간 대립 양상을 지님. 이런 상황에서 안보 기관 리더십 교체 추진은 군부 엘리트의 반발을 증폭시킴.

- 바쥬은 니제르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한 아랍 종족 출신이며, 독립 이후 권력을 장악해 온 다수 종족 하우사-풀라니 및 제르마 출신이 아닌 첫 번째 대통령임.
- 기존의 엘리트 집단은 바쥬을 리비아 출신 외국인으로 인식하면서 그의 집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냄. 이는 바쥬 대통령 취임 직전 일부 군인들의 쿠데타 시도로 이어짐.
- 바쥬은 안보 부문 개혁을 명분으로 리더십 교체를 단행함. 국가헌병대(gendamarie) 사령관, 군참모총장 등 고위 인사들을 교체함. 이는 기존 군부 엘리트의 반발을 초래함. 이에 더하여 2011년부터 대통령 경호대 수장으로 있던 치아니 교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짐.

나. 반(反) 프랑스 정서 확산

≫ 사헬 지역에서 확산 중인 반프랑스 정서는 니제르 쿠데타에 촉매제 역할을 함. 프랑스의 군사 개입, 자원 개발 독점 등으로 반프랑스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바쥬 대통령의 친프랑스 정책은 쿠데타의 씨앗을 뿌림.

≫ 프랑스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가봉, 세네갈,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구(舊)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이후에도 내정에 간섭하는 프랑사프리카(françafrique) 정책을 펼침. 이를 통해 탈식민 이후 프랑코폰(francophone) 아프리카에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유지를 시도함.

- 구식민지 국가들의 안전 보장, 병력 훈련 대가로 자국 군대의 주둔 권한을 확보함. 지부티, 코트디부아르, 가봉,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차드, 세네갈 등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자국 군대를 주둔시킴.
- 프랑스의 이익에 반하는 지도자를 제거하고 친불(親佛) 지도자 옹립 혹은 보호를 위해 직접 군대를 동원하거나 쿠데타, 내전을 사주함. 가봉, 콩고공화국, 차드, 니제르, 토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에서 이러한 개입이 이루어짐.

- 식민지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1차 구매권을 획득함. 프랑스 기업 아레바(Areva)는 니제르의 우라늄을 독점 개발하였고, 엘프(Elf)는 가봉, 콩고공화국 등에서 석유 개발을 장악함.

- 구식민지 국가들에 프랑화 사용을 강제함. 탈식민 이후 대부분의 프랑코폰 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랑스 화폐와 연동된 단일통화 세파프랑(CFA)을 사용함. 외환 거래량의 절반을 프랑스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자국 통화에 대한 프랑스의 보증을 받음.

» 프랑사프리카 정책은 친불 성향 소수 엘리트층의 부패, 독재, 인권유린을 용인 혹은 조장함으로써 프랑코폰 아프리카 국가의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부재, 저발전, 빈곤 만연에 일조함. 따라서 탈식민 이후 구식민지 대중 사이에서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팽배함. 특히 사헬 지역에서는 2010년대 초 시작된 프랑스의 군사 개입이 반프랑스 정서 확산에 기름을 부음.

- 말리 내전에 개입하여 안사르 디네(Ansar Dine), 알카에다 마그레브지부(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들을 외곽 지역으로 몰아낸 이후 프랑스는 약 5,000명 규모의 병력을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에 파병하여 바르칸 작전을 전개함.

- 무장 조직 지도자 제거와 같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프랑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가 지속됨. 특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국경에 위치한 립타코-구르마(Liptako-Gourma) 지역에서 ISGS와 JNIM의 공격 증가로 불안정이 가중됨.

- 사헬 지역민들의 프랑스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고조됨. 더 나아가 프랑스가 사헬 지역 영구 주둔을 위해 지하디스트와 내통하면서 군사 작전을 지속한다는 의혹이 확산됨. 이에 따라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에서 프랑스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발생함.

» 반프랑스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바준은 프랑스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지하디스트 테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또한 프랑스의 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 이익 독점을 용인함.

» 바준의 친서방 정책에 반대하는 군부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프랑스에 반감을 지니게 됨. 동시에 반프랑스 여론의 우세가 쿠데타 성공 및 이후 정권 유지를 보장한다고 판단함.

다. 인접국 쿠데타 성공

» 인접국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쿠데타 성공은 니제르 쿠데타 세력을 고무시킴. 즉 이들 국가 쿠데타 인사들의 권력 유지는 니제르 군부 인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음.

» 니제르와 마찬가지로 말리, 부르키나파소는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활동 확산으로 인한 안보 불안, 부패 만연,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 말리, 부르키나파소 군부는 민선 정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 쿠데타 발생 직후 AU와 ECOWAS는 말리,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회원국 자격 정지 및 경제 제재에 착수함.

- AU의 전신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는 2000년 로메 선언(Lomé Declaration)을 채택함. 이 선언은 쿠데타를 반헌법적인 정권교체로 규정하여 쿠데타 발생국의 회원국 자격 정지를 명시함. AU는 2007년 ‘민주주의, 선거, 거버넌스 관련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Democracy, Elections and Governance)’을 제정하여, 쿠데타 주동자들에 대한 제재를 회원국 자격 정지를 넘어서 경제 제재, AU 법정 회부 등으로 확대함.

- ECOWAS는 2001년 ‘민주주의와 굿거버넌스 관련 보충협약(Supplementary Protocol on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을 제정하여 군부의 쿠데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쿠데타 주동자들에 대한 제재의 토대를 마련함.

» AU 및 ECOWAS는 쿠데타 발생 후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킴. 더 나아가 ECOWAS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쿠데타 지도자들에 대해 여행 금지, 재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함. 동시에 무역 및 금융 거래 중단, 국경 폐쇄 조치를 취함.

» 하지만 말리, 부르키나파소 쿠데타 세력이 과도 정부 구성, 2년 과도기 이후 민정 이양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AU와 ECOWAS는 두 국가의 회원국 자격을 복구 시키고 경제 제재를 해제함. 이후 말리의 아시미 고이타(Assimi Goïta),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오레(Ibrahim Traoré)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성공 사례는 니제르 군부 인사들에게 쿠데타 시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함. 이들은 AU 및 ECOWAS의 제재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즉 민정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경우 제재가 해제되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함.

4. 전망

가. 니제르 정부

➤ ECOWAS의 무력 개입이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군사 개입은 ECOWAS 회원국 간 분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큼.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개입에 찬성하는 국가와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등 반대하는 국가 간 분열이 극대화됨. 이는 역내 경제 통합,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조직 소탕, 기후 변화 및 난민 문제 대응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 찬성 국가 내 무력 개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 한 예로 나이지리아 상원은 정부가 내놓은 군사 개입안을 부결시키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함. 상당수 나이지리아 국민은 무력 개입이 자국 내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경제 사정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반대함.
- 무력 개입 위협은 니제르 내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음. 더구나 니제르군은 서구 국가들로부터 훈련, 최신 무기 및 정보를 제공받음. 따라서 니제르군과의 교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ECOWAS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음.
- 니제르 쿠데타 세력은 바쥬 대통령을 인질로 잡고 있음. 군사 개입은 바쥬의 신변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설사 ECOWAS가 민주 정부 복구에 성공하더라도 ‘외국의 꼭두각시’ 이미지가 덧씌워진 바쥬의 정통성은 약화될 전망이다.

➤ 무력 개입에 수반한 엄청난 비용을 고려하여 ECOWAS는 무력 사용이 ‘마지막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니제르 군부와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 하지만 협상의 초점을 바쥬 대통령 복귀에서 새로운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음. 니제르 쿠데타 세력도 ECOWAS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 니제르 쿠데타 세력은 ‘3년 과도기’ 안을 제시했으나, ECOWAS는 이를 일축함. ECOWAS 의장인 나이지리아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이 9개월 과도기 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짐. 과도기 기간 관련하여 양측이 협상을 통해 1~2년 정도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바탕으로 쿠데타 세력은 과도 정부를 운영한 뒤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를 실시할 전망이다.

● 다수의 니제르 국민들은 쿠데타 지도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함. 하지만 치아니가 민정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를 지체시킬 경우 ECOWAS의 경제 제재 및 서구의 원조 중지가 지속될 수 있음. 이는 서구의 원조 및 인접국과의 교역에 의존해 온 니제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음.

» 과도 정부 운영 및 민정 이양 과정에서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 간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음. 또한 군부 내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갈등이 폭력으로 분출될 경우 정세 불안이 악화될 수 있음.

● 군부는 과도기 종료 후에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내각, 의회에서의 군부 출신 인사 임명, 군부 지도자들의 쿠데타 및 인권유린 관련 처벌 면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과도 정부 종료 후 치아니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있음. 이는 과도 정부 이후 권력을 노리는 민간 인사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니제르 쿠데타는 대통령 경호대가 주도함. 과도기를 거치면서 대통령 경호대 출신과 정규군 인사들 간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충돌이 수단 분쟁과 유사한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아프리카 역내

〈그림 2〉 쿠데타 벨트 지도



출처: <https://www.nytimes.com/2023/07/29/world/africa/africa-coups-niger.html?smid=tw-share>

아프리카 역내 쿠데타 확산 및 극단주의 안보 불안 악화

» 니제르 군부 쿠데타는 아프리카 역내 쿠데타 확산을 어느 정도 초래할 전망이다.

● 니제르 쿠데타로 사헬 지역 말리에서 수단으로 이어지는 ‘쿠데타 벨트’가 형성됨. 최근 가봉에서의 쿠데타 발생은 쿠데타가 사헬 지역을 넘어 중부 아프리카로 확산

되기 시작했다는 징조임.

● 니제르와 비슷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놓인 국가들은 쿠데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기니비사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베냉, 남수단 등이 이러한 국가에 속함.

» 하지만 쿠데타가 아프리카 전역을 뒤덮지는 않을 전망이다.

- 역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거나 공고화 중인 국가가 다수 존재함. 남아공, 나미비아,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음.
- 르완다, 우간다 등 장기 집권 국가 지도자들은 군부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 자신의 최측근, 종족, 혈연으로 군부 엘리트를 구성하거나, 군부 간 분열을 조장하여 쿠데타 방지에 성공을 거둠.
- 쿠데타 확산은 정부 지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쿠데타 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이끌 수 있음.

» 니제르 내 폭력적 극단주의 안보 불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사헬 지역 및 서아프리카 기니만 연안의 정세 불안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쿠데타는 수도로의 병력 집중을 초래함. 즉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에 대한 도전을 막는 데 집중하면서 상당수 병력을 수도에 배치함. 이는 니제르 분쟁의 두 전선인 말리, 부르키나파소 접경 및 나이지리아 접경 지역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 테러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쿠데타 세력은 바조움 대통령의 유화책을 버리고 군사적 해결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이는 가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정부에 불만을 가진 분쟁 지역 청년층을 폭력의 길로 내몰아 분쟁을 오히려 지속시킬 수 있음. 말리, 부르키나파소 군사 정부하에서 지하디스트 폭력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함.
- 사헬 지역 폭력적 극단주의 활동은 기니만 연안 국가들로 퍼지고 있음. 가나, 베냉, 토고,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국경 통제 강화, 정보 공유, 조직원 은신처 색출 등을 수행하고 있음. 니제르 쿠데타로 인한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활동 확산은 이들 국가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다. 아프리카 역외

프랑스의 영향력 축소 및 러시아의 역내 위상 강화 전망

» 니제르 쿠데타로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축소가 예상됨.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반프랑스 정권 등장으로 사헬 지역에서 친프랑스 성향의 국가는 차드, 세네갈 정도임. 심지어 이들 국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프랑스 정서가 팽배함. 이는

바르칸 작전 수행에 있어서 프랑스의 운신의 폭을 좁힐 것으로 보임. 동시에 쿠데타 정권의 자원 개발 독점 타파 시도는 프랑스의 경제적 위상을 흔들 수 있음.

- 반프랑스 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한 니제르 쿠데타 세력과 병력 철수를 결정한 프랑스 간 군사안보 협력은 축소 혹은 중단될 것으로 보임.
- 니제르 쿠데타 인사들은 자원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빈곤 해소를 명분으로 프랑스가 개발 중인 우라늄 광산 지분 및 이익 분배 재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반대로 말리, 부르키나파소, 수단에 진출한 러시아는 니제르를 품으면서 사헬 지역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 니제르 쿠데타 세력은 프랑스가 빠져나간 공백을 러시아로 메울 가능성이 높음.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 소탕을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모색하면서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바그너 용병의 니제르 배치도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러시아에 호의적인 여론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러시아의 군사적 진출은 자원 개발 진출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음. 한 예로 수단에서 바그너 용병은 신속대응군(RSF: Rapid Support Forces) 훈련을 대가로 다르푸르 지역 금광 개발권을 얻음. 니제르에서도 우라늄, 석유, 금 등 자원 개발에 있어서 러시아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정부가 사헬 지역 영향력 회복을 위해 프랑사프리크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역(逆)쿠데타 사주, 쿠데타 세력과의 교전은 바준을 비롯한 민주 정부 인사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반프랑스 정서를 악화시켜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프랑스의 아프가니스탄’이라 불리는 사헬 지역 개입을 축소 혹은 중단하라는 자국 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음.

»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ECOWAS 및 AU 차원의 사태 해결 노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경제 원조 중지를 지속시켜 니제르 경제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여론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다자적 측면

➤ 니제르가 속해 있는 사헬 지역 안보 위기는 국제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음. 유엔(UN)은 니제르 쿠데타를 비롯한 사헬 지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임. 2024~25년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수임한 한국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유엔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음.

- 니제르 군부의 조속한 권력 이양 및 민간 정부 구성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 촉구에 동참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가 실시될 경우 유엔과 협력하여 선거 조직 지원을 모색할 수 있음.
- 쿠데타 정권하에서 지하디스트 공격이 지속 혹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한 식량 부족, 교육시스템 붕괴, 난민 증가 등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위기 해소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아프리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A3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출신 비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 아프리카 출신 비상임이사국인 모잠비크, 알제리, 시에라리온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

➤ 아프리카 지역 기구들이 니제르 쿠데타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ECOWAS는 니제르에 대한 제재 시행 및 무력 사용 위협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AU는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시도함. 이는 사헬 지역 위기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ECOWAS 및 AU의 사헬 지역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모색할 수 있음.
-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생산성 증진, 전력 생산, 행정 시스템 개선 등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이들 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음.

-
- AU 및 ECOWAS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 인사들 간 교류 확대 추진이 필요함.

나. 양자 관계 측면

» 1961년 수교 이래 한국과 니제르 간 경제 교류 및 개발 협력은 미미했음. 2021년 총 무역액은 750만 달러,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제공한 총 원조액은 1,419만 달러에 불과함. 냉전이 한창이던 1985년 니제르에 상주공관을 개설했지만, 1989년 폐쇄함. 고위급 인사 교류도 활발하지 않고, 교민 수도 20여 명에 불과함.

» 하지만 니제르는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한 표를 지닌 국가임. 따라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있어서 중요함. 또한 우라늄, 금, 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7개국과 국경을 접한 관계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가 본격화될 경우 중요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 저발전, 취약한 거버넌스가 니제르 쿠데타 기저에 깔려 있음. 장기적으로 니제르와의 개발 협력 및 경제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니제르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

- 보건, 교육, IT, 농업, 산림 등 분야에 있어서 개발 협력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음.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역량 제고 및 기초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추진이 필요함.
-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행정 시스템 개선, 선거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모색할 수 있음.
-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우라늄, 금, 철광석, 석유와 같은 광물 자원 개발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니제르 쿠데타 주동자들은 과도 정부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민정 이양을 준비할 것으로 보임. 과도기에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 간 혹은 군부 내 갈등이 정세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정부는 니제르 쿠데타 이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잔류하고 있는 교민 보호 및 지원에 힘써야 함.

» 개발 협력 및 경제 교류 증진 및 쿠데타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니제르와 사헬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학계, 기업, 교민 등을 연결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고위급 인사 교류 및 시민들 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CONTRARIA SU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IFAN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